

기혼여성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지지로 조절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조 민 경[†]

마음길심리상담센터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고, 배우자지지가 이러한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24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방식을 사용하여 불안정 성인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배우자지지,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 성인애착, 결혼만족도, 내면화된 수치심, 배우자지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배우자지지가 조절하는지 검증한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넷째, 배우자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결과, 불안정 성인애착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유하여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배우자지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한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기혼여성, 불안정 성인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배우자지지, 결혼만족도

[†] 교신저자: 조민경, 마음길심리상담센터,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291. 1210호, E-mail: maum_gil@naver.com

 Copyright © 2023,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바로 부부관계이다(김수민, 이지연, 2015). 행복한 결혼 생활은 부부관계 자체의 만족뿐 아니라 관계를 이루고 있는 개인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건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신소희, 김정은, 남영주, 2021). 즉 배우자와의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할 경우, 갈등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거나 심하면 이혼에 이르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김광률, 정현희, 2001). 정서적 고통과 함께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혼은 자녀의 발달이나 역할혼란, 부적응 등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다양한 사회문제와 사회적비용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김미숙, 원영희, 이현송, 장혜경, 2005; 신소희 등 2021 재인용). 그러나 통계청(2021)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혼건수는 최근 30년간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0년에 4만 5천여 건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10만 2천 건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결혼 만족이 개인 및 가족, 사회의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의미를 전제할 때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신소희 등, 2021).

이러한 이혼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혼의 원인을 종단적으로 연구한 Gottman과 Levenson(2000)의 연구에서는 이혼의 가장 큰 예측요인 중 하나로 결혼만족도를 지적했다(한혜영, 현명호, 2006). 결혼만족은 부부의 심리적 고통이나 부정적인 생활

스트레스에 완충적인 역할을 하므로 부부가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혼만족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Karney & Bradbury, 1995). 결혼만족도는 상담이나 임상현장에서 결혼생활의 문제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많이 이용되어 온 개념으로,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로서 결혼생활에서의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권정혜, 채규만, 2000). 현재 한국 사회는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결혼생활의 안정성보다는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김은정, 2007).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남성의 결혼만족도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이 교육과 취업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의 역할 수행을 할 기회는 늘어났으나 가족 내에서의 역할 수행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박상희, 유금란, 2013).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을 하면서 얻는 이익이 적고(Greenberg & O'Neil, 1993), 남성보다 역할갈등과 과부하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Behrman, 1982), 이는 실제로 여성의 주도로 인한 이혼이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이렇듯 기혼여성들이 예전보다 자신의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한 결혼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혼여성의 정서적 수준 및 삶의 만족감이 가정의 안정에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초기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주로 다루었다가 점차 부부간 심리적 갈등과 관련하여 개인의 성격적 측면이나 의사소통 등 상호관계 변인에 관심을 두었다. 하지만 실제 발생하는 부부관계에는 부부 당사자의 관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원가족에서 비롯된 미해결 감정 혹은 정서적 문제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결혼만족도와 개인 내적변인과의 관계를 재탐색하기 시작하였다(정문자, 이종원, 2003). 이러한 연구에는 부부의 결혼만족이나 이혼에 미치는 개인 내적변인의 효과를 강조한 연구(박운주, 2013; Charania, 2006), 혹은 부부관계에서 상호작용보다는 애착과 같은 개인 내적 특성이 결혼만족에 더 중요하다는 연구 등이 속한다(Gattis, Berns, Simpson & Christensen, 2004). 최근에는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중 생애 초기의 애착 관계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주장 및 경험적 연구(Collins & Read, 1990)를 바탕으로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그 결과 성인애착이 연인관계에서의 만족뿐만 아니라 부부의 결혼만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정경아, 김봉환, 2010; Butzer & Campbell, 2008; Hazan & Shaver, 1987).

성인애착은 개인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특정 인물과 근접성 및 친밀감을 유지하려는 개인의 안정적 성향이다(Sperling & Berman, 1994).

애착은 ‘안전한 피난처와 안식처로서 경험되는 유의미한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로 정의되며(Bowlby, 1988), 양육자의 민감성과 반응성에 따른 상호작용에 의해 유아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타인이 반응적이고 접근 가능한 존재인지에 대한 신념과 기대 즉 자기와 타인에 대한 표상을 포함하는 내적 작동모형을 형성한다(Bowlby, 1977). 이런 내적 작동모형은 성인애착으로 이어지며, 이는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발전하게 된다(Mallinckrodt, 2000). Bowlby(1969)의 애착이론에

바탕을 둔 연구자들은 성인애착의 관점에서 부부관계를 애착 과정으로 바라보고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배우자가 안식처와 안전기지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결혼의 질에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이희숙, 박경, 2008, 정재완 2012 재인용 Collins & Feeney, 2000). 즉, 남편이나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근접하여 보살피고 지지해 주길 기대한다. 이때 부부가 서로에게 안전기지나 안식처의 역할을 상호 호혜적으로 제공할 때 애착의 안정성이 유지되면서 관계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Carnelly, Pietromonaco, & Jaffe, 1996; Fuller & Fincham, 1995; Kirkpatrick & Davis, 1994). 대표적인 성인애착 유형은 성인애착에 대한 초기 연구를 종합하고, Bowlby(1973)의 내적 작동모형을 체계화하여 자기와 타인에 대한 두 차원을 근거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통해 안정형, 몰입형, 거부형, 공포형으로 구분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성인애착의 4범주 모델이다(한혜영, 현명호, 2006). 그러나 성인애착을 인위적으로 범주화하는 경우 관계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1종 오류가 증가할 수 있고(Maxwell & Delaney, 1993), 차원적 모형을 사용했을 때 데이터가 더 일관적으로 나타났다(Fraley & Wallers,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애착의 하위차원으로서 불안과 회피라는 2개의 차원이 성인애착을 더욱 정확히 설명한다는 선행연구(한혜영, 현명호, 2006)에 따라, 기혼여성의 성인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2개의 차원으로 구별하여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불안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부부 관계에서 당사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관계에

집착하며, 회피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친밀함에 대해 두려워하여 관계에 무관심하며 갈등 상황에서도 관계를 위협하는 공격적 행동이나 폭력 행동을 보여 결혼생활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숙, 박경, 2008). 특히 회피애착은 성별에 관계없이 결혼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제안되었다(Mondor, McDuff, Lussier, & Wright, 2011).

이와 같이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높은 연관성에 대한 검증 결과를 축적하였다. 하지만 아동기 때부터 내적 작동모델을 통해 형성된 불안정 성인애착을 짧은 기간 안에 상담 등의 개입을 통해 변화시킴으로써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제안되었고(Mallinckrodt, 2000), 따라서 최근 연구에서는 두 변수 사이의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변인으로는 공감능력, 정서조절곤란, 성적친밀감, 부부 조망수용, 갈등해결 효능감, 부부 갈등 대처 전략,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 역기능적 의사소통, 정서인식명확성, 공동대처 등이 보고된 바있다(김수민, 이지연, 2015; 김광은, 2005; 신소희 등 2021; 서주현, 손은정, 2021; 이희숙, 박경, 2008; 이연주, 2018; 유수진, 류정희, 2017; 전민선, 2020; 현미나, 2010; 한혜영, 2006). 이러한 연구들은 결혼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는 측면, 그리고 불안정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불안정 애착 성향을 가진 이들은 자기(Self) 및 자아의 손상과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Cook, 1991), 이와 관련된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자기 및 자아의 손상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서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느끼면서 광범위한 평가절하, 스스로에 대해서 작고 연약하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뒤로 물러서 숨거나 사라지고 싶은 회피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angeny & Dearing, 2002). 내면화된 수치심(Internalize shame)은 자신에 대한 결핍감, 부족감, 부적절감, 열등감이 자아정체감의 일부로 내면화되어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Cook, 2001), 자기감(sense of self)의 부정적인 형성에 기초가 되는 개념이다(김은경, 2016; 이인숙, 최해림, 2005). 아동기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비일관적인 보살핌을 받거나, 거부나 무시, 정서적 학대 등 건강하지 않은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개인은 세상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도 부정적 표상을 형성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내면화하고 결핍감, 열등감, 부적절감, 외로움, 수치심 등을 경험하게 된다(Bowlby, 1973; Collins & Read, 1990; Cook, 1987; Cook, 1991; Gilbert, Allan, & Goss, 1996; Leary, Koch, & Hechenbleikner, 2001). 조영희와 정남운(2016)의 연구에서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이연규, 최한나(2013)의 연구에서는 양육자와의 부정적인 관계 경험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내면화된 수치심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애착불안 혹은 애착회피가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ook, 1987).

내면화된 수치심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공감과 타인 조망, 수용 같은 긍정적

인 대인관계 요인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이인숙, 최해림, 2005). 커플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파트너에게 공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김가영, 2016), 파트너의 지지를 왜곡되게 인식하여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김은정, 2013). 경험적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부부친밀감과 부적 상관으로 보였고(김이경, 2020), 박유진과 심은정(2020)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면, 불안정 성인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결혼만족도 세 변인 간의 밀접한 관련성은 세 변인이 일정한 발달 경로에 상호연쇄적으로 포함될 가능성, 즉 매개변인을 포함하는 관계로 연결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모형으로 개념화할 때, 잠정적 매개변인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매개효과만 고려해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간의 관계,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아울러 ‘어떤 과정을 통해’ 작용하는지에 대한 매개효과와 ‘누구에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조절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배병렬, 2015; Hayes, 2013).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지지가 특정 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혼만족도 수준에 유의하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들에 주목하였다(김정숙, 2008; 김미양, 2020; 차연실, 2004). 배우자지지는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의 필요에 대해 반응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에서 파생된 개념이다(전민선, 2020). 사회

적 지지란, 가족, 구성원, 친구, 동료, 친척, 이웃과 같은 중요한 타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개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Cutrona, 1996). 부부들은 도움이 필요한 문제에 처했을 때 배우자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기대하며, 결혼생활과 사회적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당사자의 적응과 정서적 안정에 배우자 지지가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김시연, 서영석, 2010). 이러한 점에서 부부관계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으며(김정숙, 2008), 친밀한 관계에서 파트너들 사이의 지지는 관계 유지의 필수적인 요인임(Barbee, 1990; Leatham & Duck, 1990)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지지는 긍정적인 정서적 분위기, 응집성, 연대감을 촉진할 수 있고, 정서적 고립이나 철회 등과 같은 부정적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봉은, 2015; Cutrona, 1996). 반대로,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부부간의 친밀감이 감소하고 부부관계에 갈등과 불만이 생길 수 있다(Jacobson & Margolin, 1979).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기혼여성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아손상 및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이러한 변인들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배우자 지지가 일관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김정숙, 2008; 김미양, 2020; 차연실, 2004; Acitelli & Antonucci, 1994; Cutrona, 1996; Julien & Markman, 1991; Jacobson & Margolin, 1979; Kobak & Sceery, 1988), 내면화된 수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배우자 지지가 조절할 가능성이 제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우자 지지의 조절 효과와 더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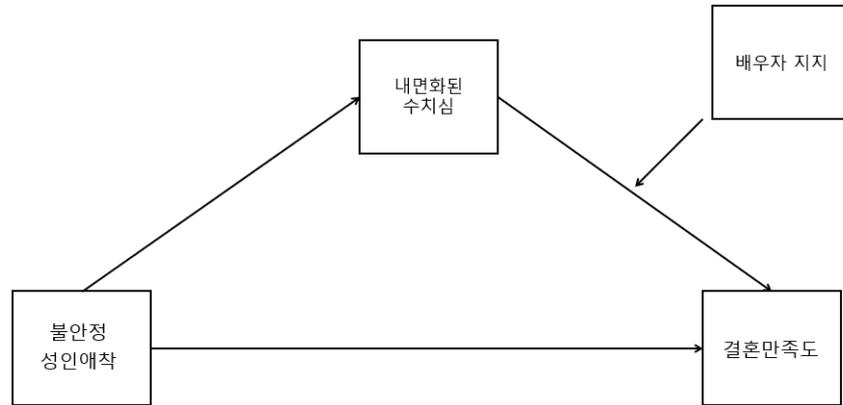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기혼여성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유하여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모형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불안정 성인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결혼만족도, 배우자지지 간의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조절된 매개모형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이러한 형태의 개념화가 타당한지, 그리고 불안정 성인애착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유하여 결혼만족도에 효과를 미치게 되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배우자지지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 불안정 성인애착을 형성한 기혼여성들이 보다 행복하게 자신의 삶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면화된 수치심은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둘째, 배우자 지지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셋째,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나타내는 매개효

과가 배우자 지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대 이상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연구대상자가 모집되었다. 설문 시작 전 연구 동의서를 첫 페이지에 게재하여 동의를 받았다. 회수된 설문지 245부 중 성별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설문 4부를 제외하여 최종 241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138명(57.3%), 5년 이상~10년 미만이 76명(31.5%), 10년 이상~15년 미만이 20명(8.3%), 15년 이상~20년 미만 4명(1.7%), 20년 이상이 3명(1.2%) 이었다. 자녀수의 경우, 무자녀인 경우가 63명(26.1%), 자녀 1명이 125명(51.9%), 자녀 2명이 47명(19.5%), 자녀 3명이 6명(2.5%) 이었다. 마지막으로 연령은 평균 34.61세였으며, 표준편차는 4.95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성인애착 척도

본 연구는 성인애착을 측정하고자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개발한 성인 애착 유형검사인 친밀관계 경험검사의 개정판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을 이후 김성현(2004)이 우리말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ECR은 Shaver와 Mikulincer(2002)로부터 신뢰도와 구성타당도 및 예언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ECR-R는 성인을 대상으로 불안정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이며, 하위요인은 불안과 회피 애착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 애착은 분리와 버려짐 혹은 거부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걱정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까봐 자주 걱정한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회피 애착은 친밀함과 의존성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문항은 불안 18문항, 회피 18문항으로 총 36문항이며, 7점(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조금 그렇지 않다; 4=보통이다; 5=조금 그렇다; 6=거의 그렇다; 7=매우 그렇다)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각 차원의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불안과 회피 수준이 높은 불안정한 애착 그리고 점수가 낮을수록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각각 .89와 .85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애착불안 .93, 애착회피는 .92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는 Cook(1987)이 개발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를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과 6개 문항의 자존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존감 척도 6문항은, 문항이 같은 방향으로 주어져 있을 경우 한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경향을 제어하기 위해 Rosenberg 자존감 척도를 수치심 척도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인숙, 최해림(2005)은 Cook의 ISS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개요인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각각 부적절감, 공허감, 자기처벌, 실수 불안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첫째, 부적절감 영역은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타인 역시 자신을 무시하고 알볼 것이라고 생각하며 소외감을 느끼는 특성을 포함하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낀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공허감 영역은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느낌과 자신의 신체와 감정에 대한 조절감을 잃은 것처럼 느끼는 특성을 나타내며, '나는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음을 느낀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자기 처벌 영역은 완벽을 추구하지만 부족함을 느끼고,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 반추하고, 타인에게 과도하게 노출되었다고 느낄 때 자신의 존재감을 없애고 싶어 하거나 실수 시에 자신을 공격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며, '나는 실수를 하면 몽둥이로 내 머리를 내리치고 싶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실수 불안 영역은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결정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특성을 포함하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하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의 전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0)’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치심 점수는 자존감 문항을 제외한 24문항의 합계로 측정된다. Cook(1987)의 연구에서 보고한 검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임상집단이 .96, 비임상집단이 .95,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였으며, 이인숙, 최해림의 연구에서는 .93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적절감 .91, 공허감 .88, 자기차별 .90, 실수 불안 .87, 척도 전체는 .89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 척도로 Snyder(1979)가 개발한 결혼만족도 검사를 기반으로 권정혜, 채규만(1999)이 표준화한 결혼만족도(K-MSI)를 유정화(2018)에서 다시 인용되었다. 이 척도는 K-MSI 160문항에서 결혼에 대한 이혼이나 별거 등 미래에 부정적인 환경에 대한 전반적 불만족 척도 22문항을 사용한다. 긍정적 진술과 부정적 진술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진술에는 ‘나는 우리의 결혼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긍정적 진술에는 ‘우리는 다른 부부들처럼 잘 지내지 못한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Likert식으로, ‘전혀 아니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다는 것은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세련, 이인수(2010)의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가 .94였으며, 김수민(2015)의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가 .92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산출된 결혼만족도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긍정적 진술 .90, 부정적 진술 .87, 결혼만족도 전체 .88로 나타났다.

배우자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인지한 배우자의 지지를 알아보기 위해 김수정과 유성경(2016)이 개발한 일-가족 양립에 관한 배우자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나의 일에 대한 존중 4문항(‘배우자는 나의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 등), 자녀양육 및 교육을 공유함 4문항(‘배우자는 육아와 관련하여 적절한 지침을 준다.’ 등), 가정 일의 분담 4문항(‘배우자는 사소한 집안일들을 도와 준다.’ 등), 어려움에 대한 지지 4문항(‘배우자는 내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별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24-120점이다. 이때에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모가 일-가정 양립에 관해 배우자의 지지를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수정(201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남편과 아내 모두 .95로 나타났고, 장소현(2019)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남편 .971, 아내 .9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결혼만족도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나의 일에 대한 존중 .85, 자녀양육 및 교육을 공유함 .87, 가정 일의 분담 .85, 어려움에 대한 지지 .87, 배우자지지 전체 .86으로 나타났다.

절차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프로그램 및 SPSS Macro PROCESS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

석하였다. 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의 영역별 불안정 성인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배우자지지, 결혼만족도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후,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불안정 성인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배우자지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넷째, 영역별 불안정 성인애착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유하여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회귀분석방법을 실시하여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PROCESS 4번 모형을 통해 매개효과와의 통계적 유의성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bootstrap 표본 수는 10,000개로, bootstrap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은 bias-corrected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을 사용하였다. 다섯 번째,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내면화된 수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자지지가 조절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평균중심화된 두 가지 점수를 곱하여 상호작용항에 투입한 후,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마지막으로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배우자지지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PROCESS 14번 모형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bootstrap 표본 수는 10,000개로, bootstrap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은 bias-corrected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우선 변인 간의 Pearson 상관계수 및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착불안은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N = 245$)

	1	2	3	4	5
1. 애착불안	-				
2. 애착회피	.256***	-			
3. 내면화된수치심	.688***	.320***	-		
4. 배우자지지	-.423***	-.315***	-.558***	-	
5. 결혼만족도	-.483***	-.274***	-.657***	.802***	-
평균	62.19	68.22	47.26	90.41	78.37
표준편차	18.20	14.73	17.29	15.74	15.16
침도	-.59	.27	-.83	1.00	.31
왜도	-.12	-.02	.24	-.79	-.49

* $p < .05$, ** $p < .01$, *** $p < .001$.

내면화된수치심, 배우자지지,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각각 순서대로 $r = .688, p < .001$; $r = -.423, p < .001$; $r = -.483, p < .001$). 아울러, 애착회피는 내면화된수치심, 배우자지지,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각각 순서대로 $r = .320, p < .001$; $r = -.315, p < .001$; $r = -.274, p < .001$). 또한, 내면화된수치심은 배우자지지,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각각 순서대로 $r = -.558, p < .001$; $r = -.657, p < .001$). 마지막으로 배우자지지는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 = .802, p < .001$). 한편, 변인들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Finch와 West(1997)는 측정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때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제안한 바,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불안, 내면화된수치심, 결혼만족도 간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첫째, 애

착불안이 내면화된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애착불안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내면화된수치심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계수는 $\beta = .649(p < .001)$ 로 애착불안은 내면화된수치심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착불안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애착불안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결혼만족도를 준거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계수는 $\beta = -.441(p < .001)$ 로 애착불안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애착불안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내면화된수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 = -.598, p < .001$). 넷째, 내면화된수치심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애착불안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54, ns$).

애착회피, 내면화된수치심, 결혼만족도 간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우선, 각 애착회피와 내면화된수치심이 각각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및 두 변인이 동시에 결혼

표 2.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수치심의 매개효과($N = 245$)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R ²	F
1	애착불안	내면화된수치심	.616	.045	.649	13.741***	.492	119.062***
2	애착불안	결혼만족도	-.368	.048	-.441	-7.701***	.251	41.885***
3	애착불안	결혼만족도	-.045	.056	-.054	-.804	.430	62.415***
	내면화된수치심		-.524	.060	-.598	-8.782***		
1	애착회피	내면화된수치심	.181	.055	.154	3.267**	.492	119.062***
2	애착회피	결혼만족도	-.166	.059	-.161	-2.808**	.251	41.885***
3	애착회피	결혼만족도	-.071	.053	-.069	-1.345	.430	62.415***
	내면화된수치심		-.524	.060	-.598	-8.782***		

* $p < .05$, ** $p < .01$, *** $p < .001$.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표 2). 첫째, 애착회피가 내면화된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애착회피를 예언변인으로 하고 내면화된수치심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계수는 $\beta = .154(p < .01)$ 로 애착회피는 내면화된수치심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착회피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애착회피를 예언변인으로 하고 결혼만족도를 준거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계수는 $\beta = -.161(p < .01)$ 로 애착회피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애착회피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내면화된수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 = -.598, p < .001$). 넷째, 내면화된수치심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애착회피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69, ns$).

다음으로, 애착불안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내면화된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추정치는 -.323으로 나타난 바, 이는 애착불안 원점수가 1점

증가할 때 내면화된수치심을 경유하여 결혼만족도 원점수를 .323점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간접효과 비표준화 추정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400 과 -.255 로 나타난 바,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는 0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애착불안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애착회피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내면화된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추정치는 -.095로 나타난 바, 이는 애착회피 원점수가 1점 증가할 때 내면화된수치심을 경유하여 결혼만족도 원점수를 .095점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간접효과 비표준화 추정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155 와 -.034 로 나타난 바,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는 0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애착회피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내면화된수치심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Aiken &

표 3.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N = 245)

독립변수	매개변수	Effect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Boot S.E.	LLCI	ULCI
애착불안	내면화된수치심	-.323	.038	-.400	-.255
애착회피	내면화된수치심	-.095	.031	-.155	-.034

주. Bootstrap 표본은 10,000번 추출하였음.

Boot S.E. = 부트스트랩 방법에 의해 산출된 표준오차; LLCI, U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및 상한값.

표 4. 내면화된수치심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결혼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N = 245)

	독립변수	B	S.E.	β	t	R ²	F
	(상수)	78.960	.527		149.804***		
1 단계	내면화된수치심	-.266	.037	-.303	-7.227***	.705	291.885***
	배우자지지	.609	.040	.633	15.089***		
	(상수)	79.897	.623		128.228***		
2 단계	내면화된수치심	-.272	.036	-.310	-7.475***		
	배우자지지	.578	.041	.600	13.932***	.712	202.278***
	내면화된수치심 × 배우자지지	.006	.002	.098	2.732**		

* $p < .05$, ** $p < .01$, *** $p < .001$.

West, 1991),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이때,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내면화된수치심과 배우자지지는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시킨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이렇게 평균중심화된 두 가지 점수를 곱하여 상호작용항에 투입하였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내면화된수치심과 배우자지지의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예측변인으로 내면화된수치심과 배우자지지를, 2단계에서는 내면화된수치심과 배우자지지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중다회귀방정식에 투입하였다(표 4). 분석 결과, 2단계에서 상대방의 원점수가 0점인 경우, 내면화된수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조건부효과가 유의하였다($B = -.272, p < .001$). 한편, 내면화된수치심의 원점수가 0점인 경우, 배우자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조건부효과 또한 유의하였다($B = .578, p < .001$). 내면화된수치심과 배우자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06, p < .01$). 이는 내면화된수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배우자지지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절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위와 동일하게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나온 각 예측변인별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와 상수를 토대로 원점수 회귀방정식을 구성하였다. 배우자지지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아래 점수, 평균 점수, 그리고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위에 있는 점수를 각각 배우자지지의 저수준, 중수준, 고수준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배우자지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부정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지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내면화된수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면화된수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배우자지지의 수준에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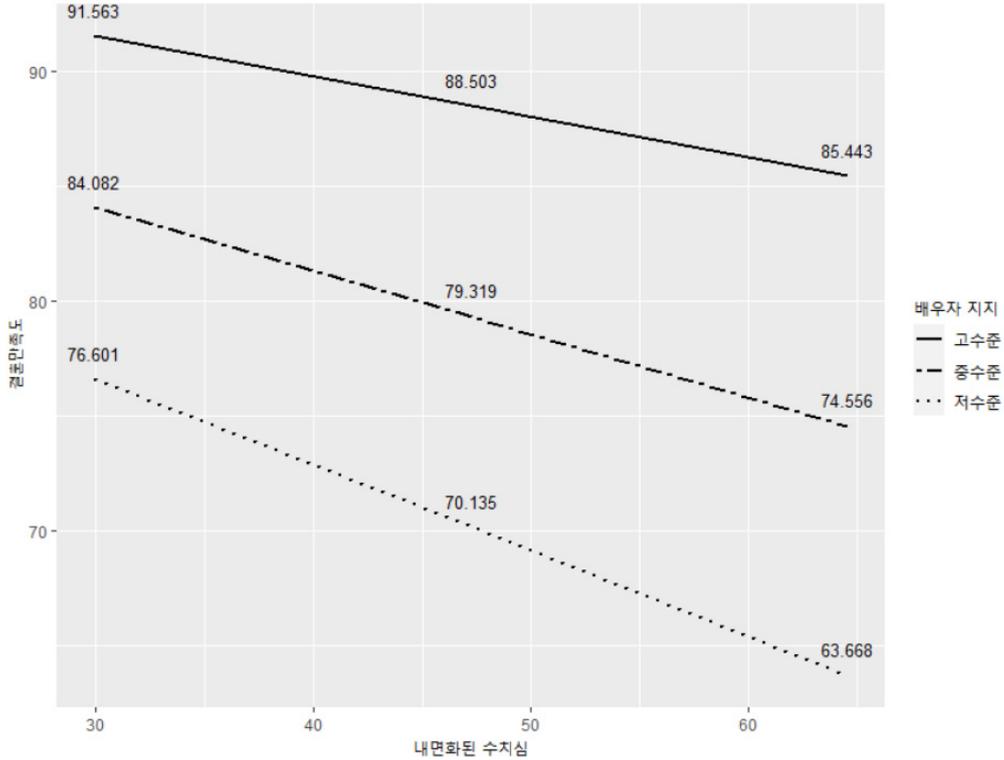


그림 2. 내면화된수치심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

상이한 양상을 나타냈으며, 이는 내면화된수치심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배우자지지의 어떠한 조건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배우자지지의 어느 영역에서 내면화된수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다른 영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은지를 조사하는 과정을 ‘상호작용 탐색(probing an interaction)’이라고 하며, 본 연구에서는 단순기울기 분석 (simple slopes)으로 알려진 특정값 선택방법 (pick-a-point approach)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ikent와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조절 변수의 원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아래 점수, 평균 점수, 그리고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위에 있는 점수의 세 조건에서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내면화된수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자지지가 조절하는 효과는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아래 점수, 평균 점수, 그리고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위에 있는 점수의 세 조건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PROCESS Model 14번 모형 분석에서 제공되는 조절된 매개 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를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는 간접효과가 배우자지지 수준

표 5.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N = 245)

배우자지지 수준	배우자지지	B	S.E.	t
저수준(M-1SD)	74.664	-.374	.054	-6.962***
중수준(M)	90.408	-.276	.037	-7.554***
고수준(M+1SD)	106.152	-.177	.049	-3.632***

* $p < .05$, ** $p < .01$, *** $p < .001$.

에 따라 달라지는 것만으로는 그 유의성을 검증할 수 없으며, 조절된 매개 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Hayes, 2015).

애착불안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이 각각 .001과 .008로, 내면화된수치심의 매개효과에 대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추가로, 배우자지지의 수준에 따라 각 내면화된수치심들의 매개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표 7).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지지 원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아래 점수, 평균 점수, 그리고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위에 있는 점수의 세 조건에서 내면화된수치심에 의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애착불안이 내면화된수치심을 경유하여 결혼만

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배우자지지가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아래 점수인 조건에서 유의하였다(Effect = -.225, 95% 신뢰구간: -.319 ~ -.145). 다음으로, 배우자지지가 평균 점수인 조건에서도 내면화된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Effect = -.147, 95% 신뢰구간: -.210 ~ -.092). 마지막으로, 배우자지지가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위에 있는 점수인 조건에서 역시 내면화된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Effect = -.106, 95% 신뢰구간: -.183 ~ -.029).

애착회피와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및 상한값이 각각 .000과 .003으로, 내면화된수치심의 매개효과에 대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추가로, 배우자지지의 수준에 따라 각 내면화된수치심들의 매개효과가 어떻게 달

표 6. 조절된 매개 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의 유의성 검증(N = 245)

독립변수	조절변수	INDEX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Boot S.E.	LLCI	ULCI
애착불안	배우자지지	.004	.002	.001	.008
애착회피	배우자지지	.001	.001	.000	.003

주. Bootstrap 표본은 10,000번 추출하였음. Boot S.E. = 부트스트랩 방법에 의해 산출된 표준오차; LLCI, U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및 상한값.

표 7. 배우자지지의 수준에 따른 내면화된수치심의 매개효과(N = 245)

독립변수	배우자지지 수준	배우자지지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애착불안	저수준(M-1SD)	74.000	-.225	.044	-.319	-.145
	중수준(M)	94.000	-.147	.030	-.210	-.092
	고수준(M+1SD)	104.640	-.106	.039	-.183	-.029
애착회피	저수준(M-1SD)	74.000	-.066	.024	-.116	-.022
	중수준(M)	94.000	-.043	.016	-.078	-.014
	고수준(M+1SD)	104.640	-.031	.016	-.066	-.006

주. Bootstrap 표본은 10,000번 추출하였음. Boot S.E. = 부트스트랩 방법에 의해 산출된 표준오차; LLCI, U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및 상한값.

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표 7).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지지 원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아래 점수, 평균 점수, 그리고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위에 있는 점수의 세 조건에서 내면화된수치심에 의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애착회피가 내면화된수치심을 경유하여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배우자지지가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아래 점수인 조건에서 유의하였다(Effect = -.066, 95% 신뢰구간: -.116 ~ -.022). 다음으로, 배우자지지가 평균 점수인 조건에서도 내면화된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Effect = -.043, 95% 신뢰구간: -.078 ~ -.014). 마지막으로, 배우자지지가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위에 있는 점수인 조건에서 역시 내면화된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Effect = -.031, 95% 신뢰구간: -.066 ~ -.006).

논 의

본 연구는 기혼여성들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고, 배우자지지가 이러한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불안정 성인애착, 결혼만족도, 내면화된 수치심, 배우자지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혼자의 불안정 애착은 내면화된 수치심, 배우자지지, 결혼만족도와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양육자와의 부정적인 관계경험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내면화된 수치심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이연규, 최한나, 2013; 조영희, 정남운, 2016)와 일치하고,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높은 연관성을 검증한 선행연구(김수민, 이지연, 2015; 신소희 등 2021; 이연주, 2018; 정경아, 2009; 현미나, 2010; 한혜영, 2004)와 일치된 결과이다. 이는 불안정한 애착경향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표상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적 내용으로 설명되며, 반면 안정적인 애착 경향이 안정적이고 상호호혜적인 상호작용에 제공하여 높은 관계의 질로 이어진다는 이론적 내용과 일치

한다(Carnelly, Pietromonaco, & Jaffe, 1996; Fuller & Fincham, 1995; Kirkpatrick & Davis, 1994). 내면화된 수치심은 배우자지지와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부부 모두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낮게 지각한다는 선행연구(박유진, 심은정, 2020)를 지지하는 결과이고, 수치심이 사회적 철수나 고립으로 동기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지지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 선행연구(Holloway, 2001)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표상은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도 공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김가영, 2016; 김은정, 2013). 또한, 배우자지지는 결혼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난 바, 이는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김정숙, 2008; 김미양, 2020; 김시연, 서영석, 2008; 정문경, 김병석, 2014)들과 일치되며, 배우자 지지의 증가가 긍정적 정서, 연대감들을 촉진시키며 결혼관계 유지에 필수적 요소라는 내용을 지지한다(김시연, 서영석, 2010; Barbee, 1990; Leatham & Duck, 1990).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들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이희숙 2008; 정경아, 김봉환, 2010; 정재완 2012; Butzer & Campbell, 2008; Collins & feeney, 2000; Collins & Read, 1990; Gattis et al., 2004; Hazan & Shaver, 1987). 일반적으로 불안정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

는 사실이다. 그동안 불안정 성인애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서조절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거나(유수진, 류정희 2017; 서주현, 2021; 사수현, 2016; 현미나, 2012), 인지 행동적 측면을 반영한 변인과 관련하여 수행되었다(김혜원, 한소영, 이지연, 2017; 유수진, 류정희, 2017; 서주현, 2021; 홍지희, 2021). 하지만 결혼만족도가 주관적으로 지각되며 따라서 개인의 정서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혼관계의 적응에서 정서를 간과했다는 제한점이 있다(McCullough, Pargament, & Thoresen, 2000). 정서는 삶을 유지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면의 신호 역할을 하며 타인의 반응을 유도하며 환경에 적응과 생존을 용이하게 돕는다(Greenberg, 2003/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착관계에서 경험한 강렬한 수치심의 경험으로부터 발생한 부정적 정서인 내면화된 수치심이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사이를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본 연구 대상인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기혼여성에게 적용하면, 초기 주양육자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기혼자는 주 양육자와의 거부적이고 비일관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으로 인해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유미선, 2020). 더불어 과거의 주 양육자로부터 받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면화하여 결핍감, 부족감, 부적절감, 열등감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자아정체감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Cook, 2001). 이러한 자신의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인한 고통으

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관계에 집착하거나(조영희, 정남운, 2016; Bowlby, 1973; Collins & Read, 1990; Cook, 1987; Cook 1991; Gilbert, Allan, & Goss, 1996; Leary, Koch, & Hechenbleikner, 2001), 역으로 친밀한 관계를 피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특성을 보인다(Brennan et al., 1998; Collins & Read, 1990).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배우자에게 안전 기지나 안식처의 역할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고(Carnelly, Pietromonaco, & Jaffe, 1996; Fuller & Fincham, 1995; Kirkpatrick & Davis, 1994), 결과적으로 결혼생활의 불만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시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기혼 여성의 결혼생활 적응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정서조절 및 인지 행동적 변인을 고려함과 동시에 정서적 측면인 내면화된 수치심의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상담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셋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배우자지지가 조절하는지 검증한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배우자지지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배우자지지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배우자지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래프를 통해 나타난 상호작용의 패턴과 상호작용 탐색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에서 가지는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는 배우자 지지의 모든 수준에서 유의했으며, 배우자 지지의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작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본 연구대상인 기혼여성에게 적용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높은 수준의 배우자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낮은 수준의 배우자 지지를 받는 사람에 비해 경험하는 결혼만족도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낮은 수준의 배우자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만족도가 빠른 속도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선행요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배우자 지지에 의해 조절됨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정숙, 2008; 김미양, 2020). 또한,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김시연, 서영석, 2008; 김정숙, 2008; 김미양, 2020; 정문경, 김병석, 2014)와,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정서적 역할 수행이 부인의 결혼생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Erickson(1993)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높은 배우자 지지는 부부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한다는 사전연구와도 일치하며, 내면화된 수치심이라는 부정적 표상, 정서를 겪음에도 배우자 지지가 긍정적 정서적 분위기, 연대감을 촉진하고 정서적 고립 등의 부정적 행동을 예방하여 내면화된 수치심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배우자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

중결과, 불안정 성인애착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유하여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배우자지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지지의 모든 수준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배우자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간접효과의 크기가 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 성인애착으로 인해 내면화된 수치심이 생겨나게 되고 이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이 불안정 성인애착으로부터 결혼만족도에 이르는 일반적 경로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된다고 간주하는 것 보다는 배우자의 지지 수준에 따라 상대 배우자가 경험하는 결혼만족도 양상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지지수준이 높아질수록 불안정 성인애착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유하여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경로를 거칠 가능성이 낮아짐을 시사한다. 이는 배우자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므로 기혼 여성의 결혼생활적응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선행연구(김시연, 서영석, 2008)와 일치하며, 부부의 지지행동은 긍정적인 정서 분위기와 연합감을 촉진할 수 있고, 부정적인 상호작용과 파괴적인 행동의 상승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장춘미, 2009; Cutrona, 1996a) 행복한 부부관계에 있어 배우자지지가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정문석, 김병석; 201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에서 오는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는 주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 선행연구(주미정, 2017)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부부상담에서 배우자 지지를 강조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전략 및 기법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불안정 성인애착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유하여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간접효과를 배우자지지가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결혼이 불안족스러워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과정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이 자신이 지각하는 배우자 지지의 수준에 의해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불안정 성인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결혼만족도, 배우자지지의 네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확장된 조망을 제시하였다. 이는 주로 매개변인 연구를 통해 변인 간의 관계에만 초점을 두었던 기존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그러한 변인 간의 관계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변인들 간의 통합적인 조망의 제공은 결혼만족도의 개선을 위한 개입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애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된 개인에게 내면화된 수치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결혼만족도를 저하시키는 발달 경로가 존재하지만 그러한 경로의 발달이 배우자지지의 촉진에 따라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불안정 성인애착을 형성한 기혼여성에게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즉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하여 발달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기존에도 불안정 애착이 결혼만족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대한 매개변인 연구가 존재하

였으나,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둔 매개변인 연구는 드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에 속하는 변인 중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에 초점을 두어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하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불안정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부부상담 현장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을 형성한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생활 적응 및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정적인 자기개념에서 비롯된 내면화된 수치심의 여부를 확인하여 치료적 관계형성에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Yontef, 2008). 또한, 비교적 고착화되어서 다루기 힘든 불안정 성인애착에 대한 개입에 앞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부정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역기능을 야기하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다룸으로써 배우자와 관계에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배우자 지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담장면에서 결혼생활의 불만족을 호소하는 기혼여성에게 배우자 지지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열등한 존재라는 자기감을 발달시키고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Lewis(1987)와 Wheeler(2013)의 주장을 고려해 볼 때,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것은 주요한 임상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혼여성들의 결혼생활 적

응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부부상담에서 강조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전략 및 기법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불안정 성인애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험하여 자아가 약화된 부부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요구되는 인지-행동치료를 단독으로 실시하기보다는 부부서로에 대한 이해와 가족면담을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만들어주고, 이러한 지지를 부부가 자각하고 자신의 배우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상담과정에 포함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현대 가족에서 기혼여성들이 예전보다 자신의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한 결혼만족도가 남성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정의 안정에 중요한 변수인 기혼여성의 정서적 수준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을 통해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자가 솔직하게 반응하지 않거나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의 실제 행동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기보고식 형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심층 면접, 실험연구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보다 신뢰로운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경우 불안정 성인애착이 결혼만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부부 중 한

개인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쌍연구를 통해 남편과 아내 각자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대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태도와 이들 요인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에 대해 연구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참고문헌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 김가영 (2019). 지각된 부모의 부부갈등이 이성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국내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울.
- 김광률, 정현희. (2001). 기독교인 철혼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상담학연구, 2(2), 181-196.
- 김광은 (2005).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및 부부 갈등 대처전략.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707-734.
- 김미숙, 원영희, 이현송, 장혜경 (2005).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양 (2020). 아동기 외상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서울.
- 김세련, 이인수 (2010). 사티어성장모델의 일치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2), 87-107.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수민, 이지연 (2015). 기혼 여성의 불안정 애착유형과 결혼만족도와 관계에서 기본심리적 욕구 충족과 부정적 갈등해결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251-264.
- 김수정, 유성경 (2016). 일-가족 양립에 관한 배우자 지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971-1002.
- 김시연, 서영석 (2008). 부적응 도식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부부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243-1267.
- 김시연, 서영석 (2010). 스트레스, 배우자지지, 결혼만족 간 관계: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189-213.
- 김은경 (2016). 불안정 성인애착,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김은정 (2007). 정서조절, 의사소통 그리고 결혼만족도의 관계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은정 (2013). 남녀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이성관계만족도의 관계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이경 (2020). 기혼남녀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계진술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국내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경기도.
- 김정숙 (2009). 부부의 자아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충청북도.
- 김혜원, 한소영, 이지연 (2017). 중년기 기혼

- 여성의 성인애착 불안/회피와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행동과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43(3), 267-297.
- 박상희, 유금란 (2013). 기혼여성이 느끼는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신뢰가 부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3), 459-475.
- 박운주 (2013). 부부의 상위기분과 정서표현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국내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기도.
- 박유진, 심은정 (2021). 부부의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상담학연구*, 22(4), 213-232.
- 배병렬 (2015).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분석. 서울: 청람.
- 사수연 (2016). 기혼 남녀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정서자각과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한국계슈탈트상담연구*, 6(1), 59-79.
- 서주현, 손은정 (2021).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곤란과 공동대처의 매개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8(6), 115-136.
- 신소희, 김정은, 남영주 (2021). 기혼남녀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검증. *생애학회지*, 11(2), 65-83.
- 유미선 (2020). 초기성인기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서울.
- 유수진, 류정희 (2017).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치료연구*, 9(2), 309-327.
- 유정화 (2018). 부부의 자기대상욕구 유형조합에 따른 내현적 대인반응과 결혼만족도 (국내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서울.
- 이봉은 (2015). 부부의 자기분화와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국내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부산.
- 이연규, 최한나 (2013).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대인존재감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人間理解*, 34(2), 21-42.
- 이연주 (2018).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서울.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ISS)의 타당화 연구- 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희숙, 박 경 (2008).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보살핌과 성적 친밀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671-689.
- 장소현 (2019). 취업모가 인지한 배우자 지지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울.
- 장춘미 (2009).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부부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153-171.
- 전민선 (2020).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역할과 가사분담만족도의 조절역할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1(4), 1293-1308.

- 정경아, 김봉환 (2010). 성인애착, 공감능력 및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人間理解*, 31(1), 89-104.
- 정문경, 김병석 (2014). 마인드풀니스, 정서조절, 지각된 배우자지지, 결혼만족간의 구조적 관계. *상담학연구*, 15(1), 499-519.
- 정문자, 이종원 (2003). 원가족변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3), 147- 164.
- 정재완 (2016). 성인애착 및 자아분화와 결혼만족도의 관계: 성적,정서적 친밀감의 매개효과. *심리유형과 인간발달*, 17(-), 1-21.
- 조영희, 정남운 (2016). 성인애착,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 표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1), 169-190.
- 주미정 (2018).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와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차연실 (2003). 재혼모의 역할긴장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서울.
- 채규만, 권정혜 (2000). 부부적응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임상*, 19(2)
- 통계청 (2022). 2021년 이혼통계결과.
<http://www.kosis.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 한혜영, 현명호 (200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4), 935-952.
- 현미나, 채규만 (2012).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4), 69-85.
- 홍지희, 김보영 (2021). 부모의 부부갈등이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와 부부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3), 1349-1374.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Sage
- Acitelli, L. K., & Antonucci, T. C. (1994). Gender differences in the link between marital support and satisfaction in older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4), 688.
- Barbee, A. P. (1990). Interactive coping: The cheering-up process in close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7(4), 46-65.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
- Behrman, D. L. (1982). *Family and/or career plans of first-time mothers*.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Research Press.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ume II: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In *Attachment and loss: Volume II: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pp. 1-429). London: The Hogarth press and the institute of psycho-analysis.
-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I. Aetiology and

- psychopathology in the light of attachment theor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3), 201-210.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46-76. NewYork: Guilford Press.
- Butzer, B., & Campbell, L. (2008). Adult attachment, sexual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 study of married couples. *Personal relationships*, 15(1), 141-154.
- Carnelle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6). Attachment, caregiving,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in couples. Effects of self and partner. *Personal Relationships*, 3(3), 257-278.
- Charania, M. R. (2006). *Personality influences on marital satisfaction: An examination of actor, partner, and interaction effec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 Cohen, C.,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5).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Routledge.
- Collins, N. L., & Feeney, B. C. (2000). A Safe Haven: An Attachment Theory Perspective on Support Seeking and Caregiving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6), 1053-1073.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
- Cook, D. R. (1987). Self-identified addictions and emotional disturbances in a sample of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1), 55.
- Cook, D. R. (1991). Shame, attachment, and addictions: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is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13(5), 405-419.
- Cook, D. R., & Coccimiglio, J. (2001). *Internalized shame scale: Technical manual*. Multi-Health Systems.
- Cutrona, C. E. (1996). *Social support as a determinant of marital quality*. In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 (pp. 173-194). Springer, Boston, MA.
- Cutrona, C. E. (1996). *Social support in couples: Marriage as a resource in times of stress*. Sage Publications.
- Erickson, R. J. (1993). Reconceptualizing family work: The effect of emotion work on perceptions of marital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888-900.
- Fraley, R. C., & Waller, N. G. (1998). *Adult attachment patterns: A test of the typological model*. New York: Guilford Press.
- Fuller, T. L., & Fincham, F. D. (1995). Attachment style in married couples: Relation to current marital functioning, stability over time, and method of assessment. *Personal Relationships*, 2, 17-34.
- Gattis, K. S., Berns, S., Simpson, L. E., & Christensen, A. (2004). Birds of a feather or strange birds? Ties among personality dimensions, similarity, and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4), 564.

- Gilbert, P., Allan, S., & Goss, k. (1996). Parental representations, shame, interpersonal problems, and vulnerability to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therapy*, 3(1), 23-34.
-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 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3), 737-745.
- Greenberg, E. & O'Neil, R. (1993). Spous, parent, worker: Role commitment and role-related experiences in the construction of adult's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81-197.
- Greenberg, L. S., & Paivio, S. C. (2008). 심리치료에서 정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홍표 역). 서울: 학지사. (2003)
- Hayes, A. F., & Preacher, K. J. (2013).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examine contingent causal processes*.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 Holloway, H. C. (2001). Shame, loss of face, and other complexities: which is cause, which is effect, and how does it work?. *Psychiatry*, 64(3), 242-247.
- Jacobson, N. S., & Margolin, G. (1979). Marital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xchange princi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Julien, D., & Markman, H. J. (1991). Social support and social networks as determinants of individual and marital outcom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4), 549-568.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s,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1), 3.
-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3), 502-512.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1) 135-146.
- Leary, M. R., Koch, E., & Hechenbleikner, N. (2001). *En MR Leary. Interpers. Reject*, 14, 145-166.
- Leatham, G., & Duck, S. (1990). Conversations with friends and the dynamics of social support. *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5, 1-29.
- Lewis, H. B. (1987). *Shame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In D. Nathanson (Ed.), *The many faces of shame*(pp. 93-133). New York: Guilford.
- Mallinckrodt, B. (2000).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10(3), 239-266.
- Maxwell, S. E., & Delaney, H. D. (1993). Bivariate median splits and spurious statistical significance. *Psychological bulletin*, 113(1), 181.
- McCullough, M. E., Pargament, K. I., & Thoresen, C. E. (Eds.). (2000).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Guilford Press.
- Mondor, J., McDuff, P., Lussier, Y., & Wright, J. (2011). Couples in therapy: Actor-partner analyse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adult romantic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9(2), 112-123.
- Sperling, M. B., & Berman, W. H. (Eds.). (1994). *Attachment in adults: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New York: Guilford Press.
- Snyder, M. (1979). Self-monitoring processes.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2, 85-128.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Gender differences in morality. developmental perspectives*. New York: Guilford Press.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Gender differences in morality*. In R. F. Bornstein and J. M. Masling(Eds.), *Empirical studies in psychoanalytic theories: Vol.10. The psychodynamics of gender and gender role*(pp. 251-269). Washington, DC.
- Wheeler, G. (2013). *Beyond individualism: Toward a new understanding of self, relationship, and experience*. Highland: Gestalt Press.
- Yontef, G., & Bar-Yoseph, T. L.(2008). *Dialogical Relationship. Brownell P Handbook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in Gestal Therapy*. Newcastle: Cambridge Scholar.
- 1차원고접수 : 2022. 12. 18.
심사통과접수 : 2023. 02. 13.
최종원고접수 : 2023. 03. 30.

The Effect of Unstable Adult Attachment on Marriage Satisfaction in Married Women: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Regulated by Spouse Support

Jo Mingyeong

Maumgil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This study examines whether internalized sham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marriage satisfaction in married women, and to verify whether spouse support modulates this mediating effect. For this purpose, we measured unstable adult attachment, internalized shame, spousal support, and marriage satisfaction using an online questionnaire for 241 people nationwide, and analyzed mediating effects, mediating effects,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s between unstable adult attachment, marriage satisfaction, internalized shame, and spousal support, all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th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stable adult attachment and marriage satisfaction.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marriage satisfaction was controlled by spousal support, the moderating effect of spous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marriage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significant. Fourth, as a result of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spouse support, it was found that the indirect effect of unstable adult attachment on marriage satisfaction through internalized shame was regulated by spouse support. Based on these result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married woman, Unstable adult attachment, Internalized shame, Spouse support, Marriage Satisfaction